

보도시점 2026.3.19.(목) 11:00
< 3.20.(금) 조간 >

배포

2026. 3. 19.(목)

희토류 업계와 통상현안 점검 및 다각화 방안 모색

- 통상교섭본부장, 희토류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목) 포스코 타워 송도에서 국내 희토류 관련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 산업부가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의 통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1.15, Proclamation)과 USTR 그리어(Greer) 대표 주재 핵심광물 통상장관회의(2.13) 등 최근 핵심광물 글로벌 현안을 공유하며,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 안정성 확보와 제도적 예측 가능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글로벌 통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다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對美 투자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김규현 (044-203-4877)
	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	책임자	주무관	김종성 (044-203-4874)
			과 장	박홍일 (044-203-5650)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윤지영 (044-203-5172)
		책임자	팀 장	김 호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차찬석 (044-203-5269)

□ 목적

- 최근 핵심광물 통상장관회의 등 공급망 재편을 위한 글로벌 논의 동향 공유 및 우리 희토류 업계의 통상현안 의견수렴
-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희토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기여 방안 모색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3.19(목) 14:30~16:00 / 포스코타워 송도 21층(인천시 연수구)
- 참석자 : 정부, 기업, 지원기관 등 10명 내외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신통상전략과장, 한미통상협력과, 광물자원팀 등
 - (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자원개발} 이계인 대표, 성림첨단산업^{영구자석} 공군승 대표, LS머티리얼즈^{영구자석} 홍영호 대표, JS 링크^{영구자석} 이준영 대표, 고려아연^{정제련} 정무경 사장, S3R^{재자원화} 서종현 대표(재자원화 포럼 회장)
 - (기관) 광해광업공단 송병철 본부장, 지질자원연구원 권이균 원장

□ 세부일정

* 인사말까지 공개

시간		내 용	비 고
14:30 ~ 14:35	5'	■ 인사말	본부장
14:35 ~ 14:50	15'	■ 美 주도 핵심광물 글로벌 논의 동향	신통상전략과장
14:50 ~ 15:55	65'	■ 토론 및 질의 응답	참석자
15:55 ~ 16:00	5'	■ 맺음말	본부장